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8월 23일,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책임자	과 장	김기현 (031-259-0315)
		담당자	근로감독관	문채희 (031-259-0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장원삼 (031-259-0369)
		담당자	근로감독관	윤정희 (031-259-0272)

